

# 보도자료



작성부서	(주)바이오니아 진단과학시약본부		
책임자	김남일 이사 (042-930-8514)	담당자	이역수 팀장 (042-930-8590)
<b>2015. 02. 23(월) 배포시</b> 취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바이오니아, 신종플루(H1N1) 창궐 인도에 실시간 진단키트 공급

- 바이오니아, 최근 인도에서 창궐중인 신종플루(H1N1) 진단키트에 대해 2차례 현지평가를 거쳐 이번에 1차로 4,000 테스트분 공급
- 금년 들어 신종플루(H1N1)로 인한 인도 내 사망자만 770여명에 이르고, 감염자는 1만2천9백 여명을 넘고 있는 것으로 인도 보건당국이 발표
- 바이오니아는 2009년 신종플루 발생시 국내 처음으로 신종플루신속진단시스템을 공급해 조기 종식에 기여, 인도의 신종플루 조기 종식에도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
- 인도에서 재 창궐한 신종플루는 2009년 멕시코에서 처음 발견, 2010년까지 전세계로 확산되어 세계보건기구 추산 1만 8천여 명의 사망자 발생. 인도에서는 당시 2년간 2천744명이 사망.

바이오니아(대표 박한오)가 2009년 전세계를 공포로 몰아넣었던 신종플루(H1N1)가 재 창궐한 인도에 H1N1인플루엔자 바이러스 진단키트 4,000 테스트분을 공급했다.

바이오니아는 올 초부터 신종플루가 발생된 인도지역에 대한 공급을 위해 현지 대리점과 신종플루 진단키트에 대한 현지 사전평가를 진행해 왔었다. 이번에 1차 공급이 이뤄진 것이다.

인도 연방보건가족복지부(UNION MINISTRY OF HEALTH & FAMILY WELFARE)의 최신 보고에 따르면, 금년 들어 사망자가 770명을 넘어섰고, 감염자도 1만2천9백 여명에 달하는 등 확산이 지속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바이오니아는 지난 2009년 신종플루 발생 직후 국내에선 처음으로 신속진단시스템을 개발해 공급했었다. 당시 신속한 진단키트의 개발과 공급으로 국내 신종플루 조기 종식에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인도에서 창궐한 신종플루는 2009년 멕시코에서 처음 발견되어 2010년까지 전세계로 확산되었다. 세계보건기구 추산 1만 8천여 명의 사망자 발생하였고, 인도에서는 2년간 2천744명이 사망했다.

바이오니아 진단과학시약본부의 김남일이사는 “이번 인도에 창궐한 신종플루가 2009년 전세계를 팬더믹에 빠트렸던 것과 동일한 것으로 바이오니아는 국내에서 조기 종식에 기여했던 경험을 살려 가능한 협력과 지원을 다할 예정이며, 이미 두 번의 현지 평가에서 진단키트의 정확성은 입증되었다”고 말하였다.

현재 H1N1 바이러스는 독감 백신에 포함되어, 계절성 인플루엔자의 일종으로 관리되고 있다.